



Web Contents



2024년 05월 02일 12시 05분

목포시,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주의 당부

2021.06.23 조회수 236

- 어패류 익혀먹기, 피부 상처시 오염된 바닷물 접촉 피하기 등 강조

목포시가 여름철을 맞아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5~6월 발생하기 시작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해수와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8~9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주로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바닷물과 접촉할 경우 감염된다.

감염 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시작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한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 전후로 높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으로는 ▲어패류 완전히 익혀먹기 ▲피부에 상처가 있을 경우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기 및 바닷물 접촉 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 ▲생굴이나 어패류 취급시 장갑 착용하기 ▲어패류 5℃ 이하 저온 저장하기 및 흐르는 수돗물에 세척 후 조리하기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하기 등이 있다.

시는 병의원에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시 즉시 신고토록 질병정보모니터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수칙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건강증진과 김단비(270-3692)

2021.06.10. 질병관리청

비브리오패혈증

비브리오패혈증균
(*Vibrio vulnificus*)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

예방
어패류 충분히 익혀 먹기(특히, 고위험군 환자)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고,
바닷물에 접촉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

원인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

증상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1/3은 저혈압이 동반,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생기고, 주로 하지에 발생

치료
병원진료(괴사조직 제거 및 근막절개술),
항생제 치료

8/9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2.목포시,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주의 당부.jpg (187 hit/ 47.0 KB) ↓

미리보기

MokPo - Si
Web Contents

